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환란 닥치면 되돌려놔야 탈 안나

☞ 15면에서 계속

오는 거니까 팔죽 방울을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팔죽이라고 한다면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방편으로 말을 하자면 또 이런 게 있죠. 어느 집에가서 머슴을 사는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지, 주인의 일을 안팎으로 일일이 걱정을 하고 참견을 하면서 분에 넘친 행동을 한다면 주인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머슴으로 살면 머슴의 본분만 지켜야 할텐데 웬 주인의 일에 참견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림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해요. 그와 똑같은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영원치가 못합니다. 시자와 같습니다. 옷이 헐면 바로 옷을 다시 갈아 입듯이 몸뚱이도 해지면 갈아 입는 옷과 같습니다. 옷 입는 거는 수명이 짧고 이 몸 옷 갈아입는 거는 수명이 좀 길다 뿐이죠. 또 옷이 맞지 않으면 얼른 벗어 버리고 딴 거 입습니다. 그와 같이 아이 적에 죽는 수가 있고 젊어서 죽는 수가 있고 늙어서 죽는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져갈 수 있을지언정 나는 가져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나'는 영원하느니라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데서 잘못 들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 한 식구가 모여서 사는 것도 인연에 따라 만나서 한 철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다시금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내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라는 조건 이 자체도 바로 헌신같이 버려야만 됩니다. 다만 부처님 뜻에도 그렇고 육신을 낳아준 부모의 뜻도 그렇고, 도는 아래로는 자식들을 낳아서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안되겠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겠기에 육신도 잘 섬겨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질계와 맞아 돌아가야 되겠죠.

애들을 공부시킨다 하더라도 정신쇠약이 되면 공부할 생각이 안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몸이 나른하고 졸립기만 하게 되니까, 그 점은 부모네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피로회복제라도 먹여서 나른하고 아프고 졸립고 그렇지 않고 정신회복이 되게끔 돌구어주어야만 모자라지가 않겠죠. 그래야 용기가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파보세요, 의욕이 생기는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점심·저녁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을 먹이는 것도 밥을 먹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약이라 이름지어 놨으니까 약이고, 밥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거나 먹여서 되는게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잘 섬기려면 반 의사는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돌려놓을 때 아플때는 화해서 찰나에 약사가 됩니다. 내 주인공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다 맡길 때는 관세음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칠성이 되고, 독성이 되고, 용신이 되고, 지신도 되고, 모든 게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놓는 대로 화해서 바꿔지기 때문에 천백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 일거일동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내 마음, 몸, 가정, 식구, 법당이 따로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어느 사찰이든지 와서 정진하고 정성들이고 하는데 있어서 자주 와서 마냥 살다시피 한다며는 스님네들은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일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님네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내 가정이요, 그 사람들이 나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며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설피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들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 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가정 섬기듯 모두가 이렇게 해야될텐데 모두가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비판하고 온통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마음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어떡하면 한 계단을 더 올라서나 하면서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사단이 많고 반면에 국민들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잘못하면 애들이 힘이 든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도 부모가 항상 싸움질이나 하고, 엇갈리고, 사냐 못사냐 하고 야단들을 한다면 그거 듣는 자식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구, 지겨워'하면서 이탈을 하게 되지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 터진 다음에 말로해서 몸을 붙들려고 애쓴들 소용이 없게 되죠. 또 몸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 몸이 저절로 오게 되고 따뜻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불교는 어떤 종교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불'이라는 건, 일체 모든 생명의 근본이요, 모든 일체 생명의 근본에서 안팎이 없이 통신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거, 혼자 살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라고요. 기독교에 있습니까? 가톨릭에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불'과 '교'라는 그 두 글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놓고 맨날 믿고, 상대를 놓고 찾고, 상대를 놓고 원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뭔 짓들입니까?

"불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하니까, 어떤 선지식이 주먹을 불끈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불법이 어떤 겁니까"하고 물으니, 또 어떤 선지식은 벌떡 내려와서 그냥 멱살을 쥐고 발길로 차고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죽겠다"고 하니 "아이구 죽겠다는 놈은 누구냐"하고 물었답니다. 말만 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경을 아주 외울 만치 읽었다 하더라도, 내용 하나에서 수만 가지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못났든 잘났든 바로 네가 걸음을 걷고 있다, 누가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회사가 몽땅 남의 손에 넘어가고도 식구들 사는 집까지 다 날렸습니다.

그림·최주현

이런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해나가는 일에 자나깨나 오직 정신을 거기다 두고서 삶의 보람을 자유스럽게 누리며 다른 사람도 돌봐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세세생생에 버림을 받아서 오간지옥에 태어나서 국냄새 밥냄새도 못맡고 벌레가 돼서 산다면 얼마나 치욕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지옥이 따로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살다가 금방 딴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수도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은 두고 가지만 업식은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한 치의 에누리 없이.

예전에 원주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뭘 잃어버리면 고양이를 시루에 앉혀서 찐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를 찌면 그것을 집어간 사람이 비비 틀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크게 잃어버리고 나서 마음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외치고는 고양이를 시루에 앉히고는 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손주를 봤는데, 머리는 고양이고 몸은 사람인 아이가 태어나 낳은 즉시 그냥 갖다가 묻어버린 예가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어버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께도 얘기했듯이 못 고치는 병이 많은데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 병은 고쳐질 수 있을지언정 '그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화해서 다른 걸로 바뀝니다. 어디서 어떠한 인과로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데 더욱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생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몰라야지, 몰라서 모르면 안됩니다. 알고 겸손하게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 어느 분이든지 정진을 한답시고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기도하거나, '해주시오'하고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무조건 믿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마음으로 굴려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뭣꼬'하기 이전,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관세음'은 관해 보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기에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네가 즉 관세음이니라. 네가 이 세상에 나서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들이고, 내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뒤집어서 자기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다 관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아서 완벽하게 지광이가 섰다 하면 이 몸 속에 들은 의식, 업식이 한 데 합쳐져서 큰 에너지 덩어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력입니다.

촛농 흐르지 않게 초심지 잘 다스리세요
잘났든 못났든 자기고삐 자기가 쥐어야

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리로 가라고 하고 저리로 가라고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 그것을 둘 아니게 다잡아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죠.

촛불이 켜져 있는데, 촛불 심지가 비뚤어졌든가 한다면 심지가 비뚤어졌으니까 불도 비뚤어져 초가 한쪽편으로만 타가지고 촛농이 줄줄 다 흘러내립니다. 심지가 너무 길어서 비뚤어졌다면 잘라버리고 똑바로 세워 놓으면 촛불이 양면으로 흐르지도 않고 곧고 밝게 잘 켜질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졌으면 다시 다스려서 바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초심지 다스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 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다스려라 하는 뜻에서, 소가 남의 집 파밭이나 배추밭에 막 들어가서 짓밟으면 안되니까 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길로 가거라 했던 거죠. 자기 고삐를 자기가 쥐고서 가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살림을 윤택하게 잘 해나가려는 것도 그렇고 회사도 나라도 역시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그렇게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신도 한 분이 남의 돈을 반이나 얻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장이 됐으니까 보란 듯 목이 뻣뻣하게 굳어졌단 말입니다. 또 사장이 되고 나니 외식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다보니까 외식에 빠지는 수도 있고 하다보니, 정신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장이라는 이름

여러분이 날더러 항상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해봤자 어떤 때는 소용없이 될 때가 있어요. 금방 말하고 돌아섰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전부 안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기가 어렵다 이소립니다.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화목하고 즐겁고 빛나게 살려며는 행동부터 진실하게 하면서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하고 부딪치기도 하니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증오하고 자식도 인연에 따라서 낳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저 놈의 새끼는 누굴 닮아서 저러나, 제 애비를 닮아서 저렇지', '제 어미를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자식의 뿌리를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싹을 망쳐놓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거니와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고,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래로는 내가 햇빛을 주는 것이 바로 뿌리를 도와주는 것이니 햇빛을 주게끔 심력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배움에 의해서 종교의 진의를 진짜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잘 되게 빌기 위해서, 산 기도를 백일을 한다 절을 천번 한다 하는데 몸으로 천번 잘할 것을 마음으로 뭉쳐서 일정례를 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서 진실로 둘 아니게 한다면 만번 하는 것보다 일배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그랬죠.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을 정신적인 배를 고프게 만들어 놓고 기도 간답시고 멀치 같은 것도 안 먹이고, '기도하는 백일 동안은 육류는 먹지 맙시다'하구선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백일이 일초가 될 수 있고, 일초가 백일이고 백일이 만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한 생각 잘 하면 한 찰나에 일어설 것이며 절름발이가 두 다리를 다 찾을 것이고, 한 생각을 잘못하면 두 다리가 다 빠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켜보세요. 관세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만물 돌아가는 것을 다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둘 아닌 도리에서 본다면 모두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있지 않아요. 내가 산으로 다닐 때도 나무의 목신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반가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무는 이리 바람이 불고 저리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가을이 되면, 잎이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인내있게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걸어가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배움을 주는 거죠. 그 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벌벌 떨면서도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날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줘서만 압니까.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네들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들 하고 다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도 들어보니 불교라는 것은 마구니 소굴이고 귀신들이 들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된 게 아니다. 당신들도 불교속에 들어있다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라, 어느 고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상대를 놓고 빌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미신이며 기복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복적으로 믿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조상들이든가 인연지었던 죽은 영혼이 다가와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둘 아니게, 즉 말하자면 자석에 쇠종류를 갖다대면 그냥 붙어서 한덩어리가 되어버리듯 그렇게 해야만 탈이 없을텐데, 가깝게 와가지고 붙으려고 한다고 해서 자꾸 떼어버리려고 하니까 자꾸 와서 붙으려고 하는 거지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자꾸 떼어버리려고 하고 붙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병고가 오든 애고가 오든 어떤 환란이 오든 그 모든걸 되돌려놔라, 불에다가 불을 넣으면 하나의 불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용광로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리듯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탈이 안난다, 이사를 가고오고, 삼재가 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체를 놓아야 한다 이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일일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재미를 보고 삽니까, 맨날 고통이 뒤따르는데요.

그래서 좀 미련한 듯한 사람이 쉬이 깨닫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련하여 놓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놓게 되는데 약은 사람들은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종교라는 이름에도 걸리지 마세요. 불교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네 거니, 내 거니, 내 종교니, 네 종교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박치고 온통 소란을 부린다면 이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라장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고, 듣고, 남의 마음을 알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그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서 내려다보고 모두 다 흡수하면서 같이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여래니라. 여래라 함은 국한된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간다면 여래일 것이고 여여치 못한다면 중생일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말을 하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전구의 모양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전력은 다 똑같다는 얘기 맨날 하죠? 그러니까 둘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말을 해도 이것이 내 말이다, 네 말이다 하지 말고 나한테 있는 사실이요,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스려나가면서 믿고, 실험해 나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가만히 보면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제사도 안 지내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낳아 길러서 사회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도의로 봐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향 피우고, 촛불 하나 켜놓고, 물 한 그릇 더놓고, 찹쌀떡이라도 한 접시 차려놓고 쭉 둘러 앉아서 길러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 둘 아닌 자리에 하소서"한다면 그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구들이 잘 먹는 음식을 장만해 놓고 "오늘 어르신네 기일이어서 음식을 조금 사왔느니라. 이것들 모두 먹어라" 이러고 먹이는 것이 바로 그 어른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잘하죠.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그 속에서 나온 수박씨를 올해 또 심었더니 다시 수박이 열렸다구요. 그랬는데 그 작년 수박씨 다르고 올 수박씨 다릅니까? 그렇게 간소하게 상을 차렸다해도 마음으로 둥글린다면 그건 바로 마음의 불을 켜는 겁니다. 그 씨가 그 씨이니까요. 바꿔진 것뿐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 한자리 한다면 위의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빛도 또 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잘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지낼 시절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내다 버렸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자식이 지게를 도로 지고 오길래 왜 지고 가느냐고 물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소리에 그만 도로자기 어머니를 업고 가더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은연적으로 자식들이 본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이 털구멍을 통해서 수없이 들고 납니다. 이거 아시죠. 악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를 미워하면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기에 둘이 아니게 여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밝게 불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하며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며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모든게 내 탓이야'하며 잘못을 뉘우치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중에 가족들 간에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을 져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증오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되어 있는것이 종교가 아닌 줄 안다면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이며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촛농이 이리저리 흐르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 해 보십시오. 그럼 이만하고 질문들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혹 별 것 아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 것아닌 곳 속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